

인사혁신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새롭게 도전하는 40대 이상의 공무원 응시생들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근평, 2015). 이는 가장 안정적이고 큰 성취를 경험해야 할 중년들이 사회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 많이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년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는 이 시대의 중년들이 피곤하고 불안하며 고달픈 삶으로 표상되기 때문이다(정성호,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한국 심리학회지에 실린 중년 남성에 대한 연구는 총 10편을 넘지 않는다(예, 김민정, 현명호, 2010; 이주희, 이선화, 2015; 최승미, 김지연, 2016). 그동안 상담심리학계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주로 아동, 청소년, 대학생에 치중된 점을 고려하면, 중년기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Lachman, 2004).

어려움을 경험할 때 타인으로부터 이해, 정보, 치료, 지지 등을 구하는 것을 도움추구라고 하는데, 특히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전문적 도움추구라고 한다(Kushner & Sher, 1991). 정서와 어려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구하는데 적극적인 여성에 비해 중년 남성들은 어려움에 처하거나 모르는 일이 있어도 쉽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Möller-Leimkühler, 2002). 이런 성향은 가족이나 사회적 연계망을 통한 도움은 물론이고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도 그대로 반영된다(Rickwood & Braithwaite, 1994). 실제로 도움추구 관련 연구에서 뚜렷한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성경, 2005; Möller-Leimkühler, 2002), 중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문 기관 이용 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하효열, 2014; Vogel,

Heimerdinger-Edwards, Hammer, & Hubbard, 2011). 이렇듯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을 Kushner와 Sher(1991)는 서비스 갭(service gap)이라 명명했는데, 중년 남성 집단은 서비스 갭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집단 중 하나다(Nam, Choi, & Lee, 2015).

그렇다고 중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거나 심리적 어려움을 덜 겪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4년도에 조사된 근로환경 만족도는 40~60세 사이의 남성이 가장 낮았고, 직무스트레스나 전반적인 생활스트레스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국가통계포털, 2014).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이혼이나 사별을 통한 상실감을 더 강하고 오래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다(한국노동패널조사, 2015). 그렇다면, 왜 중년 남성들은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전문적인 서비스 활용에 소극적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합리적 행동이론과 전문적 도움추구 모형을 토대로 남성의 도움추구를 억압하는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보고된 성역할 갈등 및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와의 구조적 관련성을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리적 변인(중년의 위기감)과 맥락적 변인(상담 친화적 환경)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우선, 모형 설정의 근거가 된 합리적 행동 이론과 전문적 도움추구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합리적 행동 이론과 전문적 도움추구 모형

합리적 행동 이론(Ajzen, Timko, & White, 1982)은 인간의 태도와 의도, 행동 간의 관계

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상담 뿐 아니라 사회 복지,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다. 이때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관념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기대와 기대에 따른 동기, 신념과 평가가 태도와 주관적 관념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어떤 행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예, 상담에 대한 태도)가 선행하고, 그로 인해 행동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도(예, 상담 의도)를 갖게 되면 그것이 행동(예, 전문적 도움추구)으로 연결된다고 가정한다.

합리적 행동 이론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Vogel과 Wester(2003)는 낙인, 성역할 규범, 자기 노출에 따른 유용성 및 위협 기대가 상담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상담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문적 도움 추구 모형’을 제안하였다. 즉, 상담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낙인찍히고 상담을 받는 것이 자신의 성역할 규범과 일치하지 않거나 낮은 사람에게 자기를 노출해야 한다는 불편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돼 결국 낮은 상담 의도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후 Vogel과 Pederson(2007)은 성역할 규범으로 인한 갈등이 상담 태도 및 의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낙인에 선행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성역할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낙인을 보고하고, 그것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인 의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성역할 갈등: 낮은 도움추구의 단초

성역할(gender role)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에게 각기 다르게 기대되고 요구되는 이상적인 역할과 행동을 뜻한다(O'Neil, 1981). 사람들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성역할로 인해 긴장, 억압, 부적응 등을 경험하는데, O'Neil(1981)은 이러한 부정적 심리상태를 성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s)이라 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불평등’의 모습으로 성역할 갈등을 경험한다면, 남성은 엄격하고 제한된 성역할을 요구 받기 때문에 ‘구속’의 형태로 갈등을 경험한다(박수애, 조은경, 2002). 남성들은 성역할 규범을 준수해야 사회에서 잘 기능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고(박수애, 조은경, 2002),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할 때 이를 개방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Good & Wood, 1995). 결국, 도움을 호소하는데 적극적인 여성과 달리 남성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수밖에 없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 받는 가장이자 상사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중년 남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지나온 삶의 이력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인데(송호근, 2013), 개인적인 문제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경우 자신을 마치 실패자처럼 느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데(박수애, 조은경, 2002), 서구에 비해 더 제한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살아온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의 성역할 갈등이 클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성역할 갈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발달 시기에 따라 남성들이 경험하는 성역할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김지현, 최희철, 2007), 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중년 남성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낙인: 도움추구에 대한 방어 장벽

한편, 생애 초기부터 오랜 기간 학습된 성역할(갈등)이 쉽게 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역할(갈등)과 전문적 도움추구와의 관계에서 자기 낙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었고,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박준호, 서영석, 2009; 이민지, 손은정, 2007; 정진철, 양난미, 2010; 황연미, 2009; Corrigan, 2004; Vogel, Wester, Wei, & Boysen, 2005; Vogel, Wade, & Haake, 2006). 예를 들어, Pederson과 Vogel(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과 상담 의도 간 관계에서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의 매개효과를, 박준호와 서영석(2009)은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과 상담 의도의 관계에서 자기 낙인과 사회적 낙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도구성, 강인함, 정서적 억제 등으로 대변되는 남성의 성역할(O'Neil, 1981)은 도움추구 행동과 직관적으로 상반되는데, 성역할에 대한 주관적 신념이 강해서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일수록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낙인찍는 것일 수 있다(Magovcevic & Addis, 2005). 힘과 권위를 중시하는 남성에게 낙인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 범주에서 벗어난 '약한 남자'로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담 서비스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와 의도를 갖게 할 수 있다(Corrigan, Watson, & Barr, 2006).

한편, Corrigan(2004)은 낙인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낙인을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낙인은 일반 사람들이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인식하는 것이고, 자기 낙인은 사회적 낙인이 내면화되어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자기 자신을 열등하고 부적절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수행된 연구들은 타인에 의한 평가를 의미하는 사회적 낙인보다 열등감이나 수치심, 자기 가치감의 손상 등 자아(self)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낙인이 상담에 대한 태도를 더 많이 예측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진경미, 권경인, 2015; 황연미, 2009). 또한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도 간 단순 상관이나 효과 크기가 사회적 낙인의 그것에 비해 크고(박준호, 서영석, 2009; 이민지, 손은정, 2007), 사회적 낙인과 상담 태도의 관계를 자기 낙인이 완전 매개하며(정진철, 양난미, 2011; Pederson & Vogel, 2007), 상담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사회적 낙인의 직간접 효과는 사라졌다(박준호, 서영석, 2009). 더욱이, 중년 남성들의 경우 외부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면으로 돌려 자아실현 및 개성화를 발달 과업으로 삼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Jung, 1945), 본 연구에서는 자기 낙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전문적 도움추구의 조절된 매개모형

앞서 기술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갈등 및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와의 구조적 관련성을 검증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심리적 변인과 맥락적 변인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완고하고 이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들은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마치 스스로의 약함을 드러내는 일이라 여겨 도움이 절실한 경우에도 상담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Good & Wood, 1995). 반면, 성역

할 갈등이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들이 오히려 전문적인 도움을 구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Rickwood & Braithwaite, 1994). 이렇듯 성역할 갈등과 전문적 도움추구의 관계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두 변인 사이에 조절변인이 존재함을 시사한다(박준호, 서영석, 2009). 한 사람이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과정에 많은 조절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 연구들은 변인 간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같은 맥락에서, 자기 낙인은 도움추구 행동에 있어 가장 주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회피 요인 중 하나로 연구되어 왔는데(Corrigan, 2004; Kushner & Sher, 1991), 그것을 증폭 또는 완화시키는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 인종, 상담 장면, 호소문제 유형 및 증상의 심각도, 사회문화적 배경 등 조절변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Kendra, Mohr, & Pollard, 2014; Pederson & Vogel, 2007), 경험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친화적 환경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중년의 위기감: 도움 추구에 대한 방어 장벽을 흔드는 마음의 지진

합리적 행동이론을 주창한 Ajzen(1991)은 어떤 행동을 예측하는데 특정 요인들이 적합할 경우 그 요인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Rickwood와 Braithwaite(1994), Rickwood, Deane, Wilson과 Ciarrochi(2005), Vogel 등(2005)은 심리

적 증상, 성별, 성격 요인,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변인을 추가로 채택했는데, 그 중에서도 심리적 증상은 전문적 도움 추구 연구에서 중요한 조절변인으로 확인되었다(Levant et al., 2013; Rickwood & Braithwaite, 1994; Vogel et al., 2005). 남성의 경우 우울, 불안과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를 의미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따라 낙인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지거나(Möller-Leimkühler, 2002) 상담 의도가 달라졌다(Saywer, Borojevic, Spence, Sheffield, & Lynch, 2012). 특히, 중년 남성들이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 고통이 심할 경우 상담 기관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vant et al., 2013).

중년 또한 심리적 디스트레스(우울, 불안)를 부정적인 정서로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년 남성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Jang, Chiriboga, & Okazaki, 2009). 왜냐하면,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을 고수하며 살아온 중년 남성에게는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고 심리적 고통을 표현할 경우 인생이라는 링 위에서 쫓겨날 것만 같은 더 큰 불안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대신 중년 남성들에게는 전환기적 정서라 할 수 있는 중년의 위기감이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보편적 정서라 할 수 있다(Levinson, 1978). 중년의 위기감은 우울이나 불안의 선행적, 원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중년 남성의 우울이나 자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년의 위기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미옥, 김경숙, 2016).

‘중년의 위기감’은 인생 중반에 이르렀을 때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 목표 성취 정도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급진적인 변화로(김애순, 윤진, 1991; Levinson, 1978), 정서적 고통과 우울, 공허함 등을 수반하는 중

년기의 대표적 정서다. Jung(1945)에 따르면, 중년기에는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감과 성취에 대한 욕구, 노부모를 돌보는 동시에 자녀의 독립을 조력하는 과업 등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이 심화된다. 이때 억압했거나 소홀히 여겼던 자아의 부분들을 인식하고 수용해가는 개별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숙함과 타인에 의해 위협받지 않는 자아 가치감을 지니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의식적 갈등과 정서적 혼란, 무기력 등을 경험하게 된다. 중년의 위기감은 우울과 불안, 활력의 상실과 같은 정서적 위기감 외에도, 목표에 대한 회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 자아의 이해 등 중년 남성의 전환기적 갈등을 보다 섬세하게 설명해준다(Levinson, 19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심리적 디스트레스(우울, 불안)(Levant et al., 2013; Rickwood & Braithwaite, 1994; Vogel et al., 2005) 대신, 중년의 위기감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지만, 현재까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중년의 위기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중년의 위기감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어떤 형태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관련 변인(예, 우울)의 조절효과를 통해 중년의 위기감의 조절효과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Levant 등(2013)은 성역할 갈등의 원인이 되는 성역할 규범과 상담 태도의 관계에서 자기 낙인의 매개효과와 우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완고한 남성이라도 우울이 심하면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고 싶은 절박함 때문에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자기 낙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ogel과 Wester(2003)의 연구에서도 우울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담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만 상담 받을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경우 우울이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 중년기는 지금까지 가졌던 가정과 믿음이 강렬하게 도전받는 전환과 변형의 시기로서(Levinson, 1978), 자기몰입이 심해 침체에 빠지는 등 연령 특수적인 위기감을 경험한다(Lachman, 2004). 즉, 중년 남성들은 대학생과는 매우 다른 발달과제 및 위기에 노출된다고 가정된다. 어떤 의미에서 중년기에는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고민하고 이에 수반되는 혼란과 무기력을 경험하는 청소년기와 유사한 위기에 처한다고 볼 수 있다(Levinson, 1978).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아도 우울이 심할 경우 상담 의도가 낮아지고(Saywer et al., 2012), 우울이 심할수록 자살사고가 상담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son & Deane, 2010). 이는 청소년에게 우울이 상담서비스에 대한 회피요인임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중년의 위기감이 우울의 선행 요인으로서 연령 특수적인 감정이라는 점과 중년들이 발달과제 상 청소년들과 유사한 위기감을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년의 위기감이 회피요인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상담 친화적 환경: 도움 추구를 막는 장벽을 오르는 사다리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조절변인으로 상담 친화적 환경을 설정했는데, 상담과 관련된 환경 여건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예, Cauce et al., 2002). 실제로, 주변에 접

근 가능한 전문 시설이 있거나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Cepeda-Benito & Short, 1998), 상담에 관한 정보(Mackenzie, Gekoski, & Knox, 2006)를 많이 접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권유(Kushner & Sher, 1991)가 있을 때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경과 전재영(2012)의 연구에서 회사원들은 기업 상담실에 방문한 이유로, 거리상 가깝고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최난경과 정문자(2013)의 연구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물리적 접근성이 좋을수록, 상담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습득할수록, 가족 및 지인의 반대가 적을수록 상담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나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Anderson (1995)의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환경 접근성의 문제를 연구하였다. 행동 모델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치관, 태도, 인식 등 개인 특성을 의미하는 선행 요인, 경제적/물리적 접근성, 사회적 지지 등 서비스 이용을 증폭시키거나 저해하는 자원 요인, 서비스 이용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욕구 요인으로 구분한다. 정연정(2010)은 교육복지시설을 이용한 1263명을 대상으로 ‘중요한 타자의 지지’, ‘가족과 친구의 승인’,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및 공급 요인’ 등 자원 요인이 낙인과 이용 행동의 관계에서 태도의 매개효과를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서비스 이용 대상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이용을 망설이다가도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서 지지를 보내주면 서비스 이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교육복지시설은 학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활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빈곤’ 또는 ‘학

업부진’과 같은 ‘문제’를 지닌 사람이라는 낙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년 남성의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이용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행동모델 및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담 친화적 환경을 시간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주변 지인의 지지 정도, 상담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으로 정의하고, 상담 친화적 환경이 자기 낙인과 상담 의도의 관계에서 상담 태도의 매개효과를 조절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년 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상담 의도 간 관계에서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친화적 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그림 1 참조). 우선,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변인으로 상담에 대한 태도 또는 상담 의도 중 하나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한 선행 연구들(정진철, 양난미, 2010; 황연미, 2009; Good & Wood, 1995; Vogel & Wester, 2003)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상담 태도와 상담 의도를 모두 모형에 포함시켰다. 상담에 대한 태도는 다른 변인(예, 주관적 규범, 행동 통제감)에 비해 상담 의도와 더 큰 상관을 나타냈고(Vogel & Wester, 2003), 상담 의도 변량을 30% 이상 설명했으며(최희철, 2010; Vogel et al., 2006), 학습을 통해 태도가 변화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였다(Ajzen & Fishbein, 1977). 이 때 합리적 행동 이론(Ajzen, 1991)을 토대로 상담에 대한 태도가 상담 의도에 선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합리적 행동 이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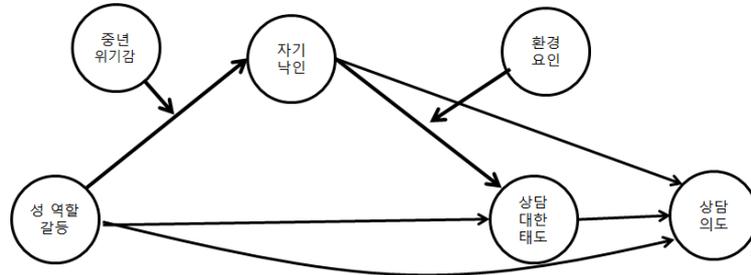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에서 가정한 조절된 매개모형

Vogel 등(2003, 2005, 2007)의 전문적 도움 추구 모형을 바탕으로, 자기 낙인이 성역할 갈등과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 의도와 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a: 자기 낙인은 성역할 갈등과 상담에 대한 태도 간 관계, 성역할 갈등과 상담 의도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1b: 상담에 대한 태도는 자기 낙인과 상담 의도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Jung(1945)의 중년기 위기론과 Anderson(1995)의 행동모델을 토대로,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친화적 환경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a: 중년의 위기감은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2b: 상담 친화적 환경은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1a부터 가설 2b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절된 매개효과 패턴을 시사한다 (Preacher, Rucker, & Hayes, 2007). 즉, 중년의 위

기감이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 간 직접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역할 갈등과 다른 준거변인(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 의도)들의 간접적인 관계 또한 중년의 위기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Levant et al., 2013; Vogel & Wester, 2003)와 중년의 위기감에 대한 Levinson (1978)의 주장 또한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마찬가지로, 상담 친화적 환경이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 간 직접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자기 낙인과 상담 의도 간 간접 관계 역시 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연정(2010)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a, 3b: 중년의 위기감은 성역할 갈등과 상담 태도 간 간접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a). 중년의 위기감은 성역할 갈등과 상담 의도 간 간접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3b). 구체적으로, 중년의 위기감이 클수록 이러한 간접 관계는 더 강할 것이다.

가설 3c: 상담 친화적 환경은 자기 낙인과 상담 의도 간 간접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담 친화적 환경 요인이 강할수록 간접 관계는 더 약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 137명, 경기도 69명, 충청도 11명, 경상도 37명, 전라도 12명, 강원도 4명 등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중년 남성 270 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년기 연령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와 생활연령을 바탕으로 중년을 40세부터 59세 사이로 간주한 Levinson(1978)의 견해를 따랐다.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느낀 22명은 오프라인으로, 나머지 248명은 온라인 설문조사(survey monkey)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년 남성을 모집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친인척, 친구, 회사 동료 및 선후배, 동호회 등 연구자의 지인과 지인의 지인들을 통해 설문 사이트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링크하여 설문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참여자는 설문 응답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 참여 및 응답 내용의 비밀보장 등을 기술한 진술문을 읽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순서 효과를 줄이기 위해, 척도의 순서를 다르게 제시한 두 종류의 설문지를 제작한 다음 배포 순서를 무선으로 정하였다. 설문을 작성하는데 약 20분-30분이 소요되었고,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했다. 설문에 참여한 남성 중 문항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반응했거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257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48.29세($SD=6.20$)였고, 40대가 134명, 50대가 123명이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78.2%였으며,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는 35명, 지인이 상담을 받

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4명이었다. 연구 참여 조건(온/오프라인)과 지역에 따라 연구변인의 수준이 다른지 확인한 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인이 상담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상담 친화적 환경 수준이 높고 자기 낙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상담 친화적 환경 변인이 지인들로부터의 지지나 상담 정보 등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있고, 지인의 상담 경험 변인이 매개변인이나 준거변인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Kenny, Kashy, & Bolger, 1998), 공변인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시 별도의 공변인을 설정하지 않았다.

측정 도구

남성의 성역할 갈등

중년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평정하기 위해 한국판 성역할 갈등 척도(K-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를 사용하였다. K-GRCS는 성역할 갈등을 개념화한 O'Neil (1981)의 연구를 기반으로 O'Neil, Helms, Gable, David와 Wrightsman(1986)이 개발한 Gender Role Conflict Scale을 김지현, 황매향, 유정이(2003)가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이다. K-GRCS는 1) 성공, 권력, 경쟁, 2) 감정 억제, 3) 남성 간 애정행동 억제, 4) 일과 가족 관계 간 갈등이라는 4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육체적으로도 강인해지는 것이 내게 중요하다', '일이나 공부 때문에 여가 시간이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 등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일치한다(6점)'의 6

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이 큼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5~.84,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86으로 나타났다(김지현 외, 2003). K-GRCS 점수는 남성의 성역할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r=.46$; 김지현 외, 2003), 상담 태도와는 부적 상관($r=-.11$) 자기 낙인과는 정적 상관($r=.59$; 박준호, 서영석, 2009), 중년의 위기감과 정적 상관($r=.31$)을 나타냈다(최태산, 박혜경, 2011).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의 내적 일치도는 .75~.80이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91로 나타났다.

자기 낙인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자기낙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Vogel 등(2006)이 제작하고, 이민지와 손은정(2007)이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거쳐 변안한 도움 추구 자기 낙인 척도(Self-Stigma of Seeking Help Scale; SSOSH)를 사용하였다. SSOSH는 '상담자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나는 열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5개 문항은 역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자기 낙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과정에서 .89~.91의 내적 일치도가 보고되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로 나타났다(Vogel et al., 2006). 또한 SSOSH 점수는 상담에 대한 태도($r=-.53\sim-.63$), 상담 의도($r=-.32\sim-.34$)와 부적 상관을, 지각된 사회적 낙인($r=.46\sim.48$)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 구인 타당도가 확보되었다(Vogel et al., 2006). 이민지와 손은정(2007)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3

이었고, 사회적 낙인과는 정적 상관($r=.52$), 상담에 대한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53$).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79로 나타났다.

상담에 대한 태도

중년 남성의 상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Th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Shorten Version; ATSPPH-S)를 사용하였다. ATSPPH-S는 Fischer와 Turner(1970)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과의사와 정신병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29문항으로 제작한 ATSPPH를 Fischer와 Farina(1995)가 10문항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정신병원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되었고, 성별, 시간과 관련된 용어가 변경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만약 내가 현재 심각한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상담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고, 5개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을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4였고, 이전 도구와 유의미한 상관($r=.87$)을 나타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상담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scher & Farina, 1995). 한국에서는 박준호와 서영석(2009)이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통해 ATSPPH-S를 변안하였는데,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70으로 나타났고, 상담 의도와는 정적 상관($r=.12$), 성역할 갈등($r=-.11$), 자기 낙인($r=-.36$)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

구에서는 박준호와 서영석(200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76이었다.

상담 의도

참여자들의 상담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Cash, Bagley, McCown과 Weise(1975)가 개발하고 Robertson과 Fitzgerald(1992)가 수정한 상담 의도 척도(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Inventory; ISCI)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17개의 심리 정서적 문제 목록에 대한 상담 의도를 6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여러 심리적 문제에 대해 상담 받을 의도가 크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9~.90으로 나타났다(Cepeda-Benito & Short, 1998; Vogel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Vogel과 Wester(2003)가 ‘절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수정한 질문지를 신연희와 안현의(2005)가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통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신연희와 안현의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89이었고, 상담에 대한 태도($r=.31$), 심리적 불편감($r=.38$)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ISCI가 진로 선택, 시험 불안, 교우관계 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과 갈등’을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으로, ‘진로 선택’은 ‘실직/퇴직 후 진로문제’로, ‘시험 불안’은 ‘승진 및 성과에 대한 불안’으로, ‘교우관계 문제’는 ‘상사, 부하, 동료 간 대인관계 문제’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96, N=257)=271.201, p<.001$; CFI=.90; TLI=.90; NFI=.90;

RMSEA=.08(90% CI=.07-.10).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90이었다.

중년의 위기감

중년의 위기감을 측정하기 위해, Levinson(1978)의 중년 전환기 이론을 바탕으로 김애순과 윤진이가 1991년에 개발하고 1993년에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6개 하위요인, 67개 문항으로 개정된 중년의 위기감 척도(Mid-life Crisis Scale; MCS)를 사용하였다. MCS는 정서적 위기감 22문항(예, 나는 요즈음 산다는 것이 공허하고 험하게 느껴진다), 개별화 과정 14문항(예,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활력의 상실감 7문항(예, 나는 요즈음 능력의 한계가 느껴지고 예전만큼 일할 수 없다), 직업 불만족도 10문항(예, 내가 기대했던 성공의 결과나 노력의 대가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결혼 불만족도 10문항(예, 나는 예전보다 자식, 아내와의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자녀 관계 4문항(예, 내 아이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이 불안하고 속상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고, 4개 문항은 역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년의 위기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년의 위기감은 성역할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r=.31$; 최태산, 박혜경, 2011),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r=-.49$) (이서영, 2014)을 나타냈다. 김애순과 윤진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6, 하위 척도별 내적 일치도는 .74~.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97,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72~.95로 나타났다.

상담 친화적 환경

중년 남성이 지각하는 상담 관련 환경 요인을 측정하는 타당화된 척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Penchansky와 Thomas(1981)의 적합성 모델을 토대로 상담 관련 환경 요인을 추출하였다. 즉,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간, 교통수단, 이동거리와 같은 물리적 접근성, 소득 수준과 보험 적용 정도 등의 경제적 상황, 주변 사람들의 지지 및 승인, 그리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습득 등이 상담 관련 주요 환경 요인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최난경과 정문자(2013)가 개발한 부모 평정용 ‘아동 상담 관련 환경 척도(Child Counseling-related Environment Scale)’를 참고해서 구체적인 문항을 제작하였는데, 최난경과 정문자는 Kazdin, Holland, Crowley와 Breton(1997)이 개발한 치료 참여 장애 척도(Barriers to Treatment Participation Scale; BTPS)와 Boydell 등(2006)의 상담 이용 방해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척도 문항을 구성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해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여건을 측정하는 시간적 접근성(‘내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치와 거리 등의 물리적 여건을 측정하는 물리적 접근성(‘가깝고 이동이 편리한 곳에 상담센터가 있다’), 상담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경제적 여건(‘상담센터 이용에 대한 비용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의 지지 및 권유를 측정하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내가 상담 받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지지할 것이다’), 상담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을 측정하는 상담관련 정보(‘주변 사람이나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 상담자가 하는 역할 등에 대해 쉽게 알 수가 있

다’) 등 총 다섯 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1개 문항(경제적 여건)은 역채점 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 친화적으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요인(시간적·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여건·상담 관련 정보, 주변 사람들의 지지)이 추출되었고(요인의 고유치=1.22~2.74), 3요인은 전체 변량의 62.33%를 설명하였다.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70이었다.

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가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데, 조절변인은 매개효과를 설명하는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Wu & Zumbo, 2008). 본 연구에서는 Preacher 등(2007)의 제안에 따라 점진적 접근(piecemeal approach), 즉 모형 내 각 경로들을 분석한 후 이들을 결합한 조건부 과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매개모형, 조절모형, 조절된 매개모형 순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했고, 홍세희(2000)의 제안에 따라 CFI, RMSEA와 TLI를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이때 조절된 매개모형으로 갈수록 잠재변인 및 추정 모수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합도 지수가 적게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해서(Kenny & McCoach, 2003) 다소 관대한 Hu와 Bentler(1999)의 기준을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Hu와 Bentler는 CFI와 TLI가 .95 이상, RMSEA가 .06 이하일 때 가장 적합하고,

.90 이상, .08 이하일 때 적절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90 이상, .08 이하를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모수에 근사한 일관성,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각기 다른 표본에서 산출된 추정치들이 서로 유사한 효율성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Fisher, 1925).

결 과

매개모형 검증

기술통계 분석

SPSS 22.0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룬 것으로 판단하였다(Finch, West, & MacKinnon, 1997).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과 모수 추정 방법 중 하나인 최대우도법 사용에 필요한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대우도법은 수집된 자료를 모집단이 아닌 표본으로 가정하여 관측치를 고정하고 그러한 관측치가 나오게 하는 가장 그럴 듯한 모수값을 추정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서, 추정치의 기댓값이 실제 모수와 일치하는 비편향성, 표본크기가 커질수록 추정치가 실제

Russe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하위 척도가 존재하는 중년의 위기감 척도를 제외하고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나머지 변인들에 대해 요인부하량에 따라 세 개씩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였다. 한국판 성역할 갈등 척도의 경우, 원 척도의 부하량이 다소 낮기 때문에 척도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는 제작자들의 권유가 있었다(김지현 외, 2003). Little, Cunningham, Shahar와 Widaman (2002)은 원 척도가 불안정하거나 부적합한 모수 추정치가 도출될 경우, 다른 변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항 꾸러미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하위 척도의 요인부하량이 다소 낮은 성역할 갈등 척도에 대해서도 하위 척도 대신 3개의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 간 상관

변인	1	2	3	4	5	6	M	SD	왜도	첨도
1. 성역할 갈등	-						3.70	0.61	-0.46	0.63
2. 자기 낙인	.33**	-					2.52	0.56	-0.12	-0.30
3. 상담에 대한 태도	-.18**	-.49**	-				3.18	0.40	-0.41	0.67
4. 상담 의도	.20**	-.03	.38**	-			2.38	0.48	-0.17	0.61
5. 중년의 위기감	.50**	.27**	-.07	.37**	-		2.91	0.58	-0.12	0.04
6. 상담 친화적 환경	-.13*	-.13*	.14*	.14*	-.07	-	2.91	0.60	-0.04	-0.11

주. N=257.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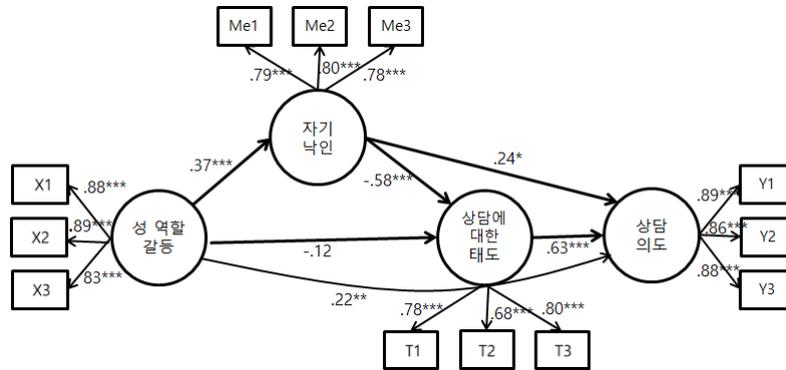


그림 2.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상담 의도의 구조모형
 주. N=257. * $p<.05$. ** $p<.01$. *** $p<.001$.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 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48, N=257)=102.30, p<.001$; CFI=.97; TLI=.96; RMSEA=.07(90% CI=.05-.09). 또한 모든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본 연구의 매개모형 또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48, N=257)=102.30, p<.001$; CFI=.97; TLI=.96; RMSEA=.07(90% CI=.05-.09).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성역할 갈등은 자기 낙인($\beta=.37, p<.001$)과 상담 의도($\beta=.22, p<.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담에 대한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2, p=.091$). 자기 낙인은 상담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beta=-.58, p<.001$),

상담 의도에는 정적인 영향을($\beta=.24, p<.05$)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담 태도는 상담 의도에 정적인 영향($\beta=.6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갈등이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도를 통해 상담 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 Shrout과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원자료(N=257)로부터 무선허당으로 1000개의 표본을 생성하고,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성역할 갈등은 자기 낙인을 통해 상담 태도에, 자기 낙인은 상담 태도를 통해 상담 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 때, 자기

표 2. 간접효과 검증

독립변인 → 매개변인 → 종속변인	표준화계수	95% 신뢰구간 (최고치와 최저치)	
성역할갈등 → 자기낙인 → 상담에 대한 태도	-0.21**	-0.34	-0.11
자기낙인 → 상담에 대한 태도 → 상담의도	-0.36**	-0.64	-0.18
성역할갈등 → 자기낙인 → 상담에 대한 태도 → 상담의도	-0.12*	-0.25	-0.02

주. N=257. * $p<.05$. ** $p<.01$.

낙인은 성역할 갈등과 상담 태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또한 성역할 갈등은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를 매개로 상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모형 검증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의 관계를 중년의 위기감이 조절하는지,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의 관계를 상담 친화적 환경이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우선, 다중공선성을 최소화하고 조절효과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도록 변인들을 평균중심화 하였다(West, Aiken, & Krull, 1996). 상호작용효과 분석에서 잠재변인을 사용할 경우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를 이뤄도 상호작용 항의 지표 변인이 정상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없고, 요인계수와 오차분산의 고정에 비선형 제약을 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정값을 사용해 척도 불변성을 확보할 수 있어 비선형 제약이 불필요한 Ping(1996)의 2단계 추정법을 활용하였다(홍세희, 정승, 2014). 1단계에서는 측정모형을 추정하여 모수치를 구한 다음 식에 대입하여 상호작용 변인에 고정할 분산, 요인 계수, 오차 분산 값을 도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은 값을 상호작용 변인에 고정된 후 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 때, 상호작용 지표들은 다중지표 변인이 아닌 단일지표 변인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비정상성의 문제와 표준오차의 과소 추정 문제가 적고 보다 나은 적합도를 제시하는 이점이 있다. 두 개 조절모형에 대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은 모두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각 조절모형에서 상호작용 항의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그림 3에서와 같이 성역할 갈등과 중년의 위기감의 상호작용 변인이 자기 낙인으로 향하는 경로($\beta=.16, p<.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의 관계를 중년의 위기감이 조절함을 시사한다. 조절효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성역할 갈등과 중년의 위기감이 높은 집단(평균에서 표준편차 1 이상)과 낮은 집단(평균에서 표준편차 1 이하)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전개하였다(Aiken & West, 1991).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의 관계는 중년의 위기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의 위기감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 간 기울기가 유의한 반면($b=.41, p<.001$), 중년의 위기감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 간 기울기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9, p>.05$).

표 3. 조절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측정모형	조절모형1	135.122	51	.001	.95	.94	.07
	조절모형2	54.018	24	.001	.97	.95	.07
구조모형	조절모형1	172.136	63	.001	.93	.92	.08
	조절모형2	79.178	33	.001	.95	.93	.07

주. N=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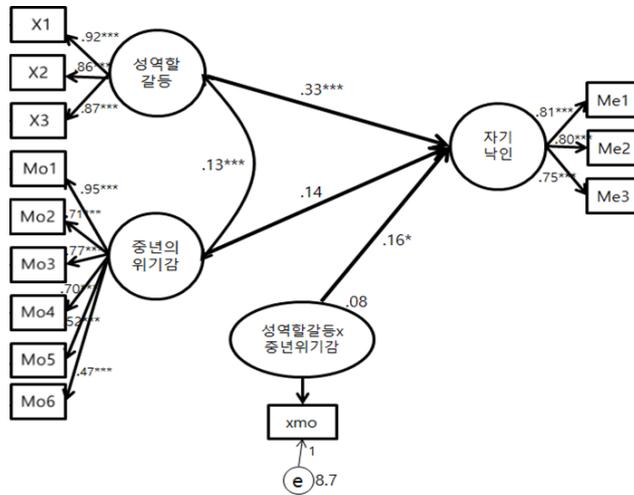


그림 3. 조절모형 1의 경로계수(표준화 계수)

주. $N=257$. * $p<.05$. *** $p<.001$.

상호작용변인의 단일지표(xmo) 외 측정지표의 오차항은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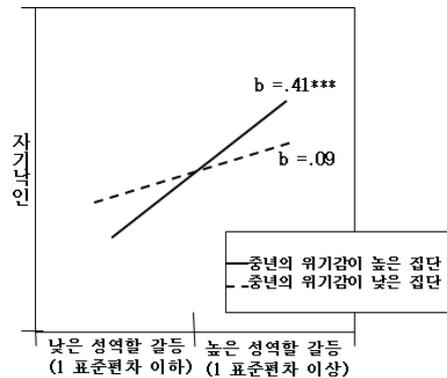


그림 4. 중년의 위기감에 따른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의 관계

주. $N=257$. *** $p<.001$.

또한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 자기 낙인과 상담 친화적 환경의 상호작용 변인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5, p<.05$). 이는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의 관계를 상담 친화적 환경이 조절함을 시사한다. 조절효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 친화적 환경 수준이 낮은 집단(평균에서

표준편차 1이하)과 높은 집단(평균에서 표준편차 1 이상)에서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의 관계가 다른지 확인하였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의 관계는 상담 친화적 환경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상담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었고 지각하는 정도가 큰 집단에서는 자기 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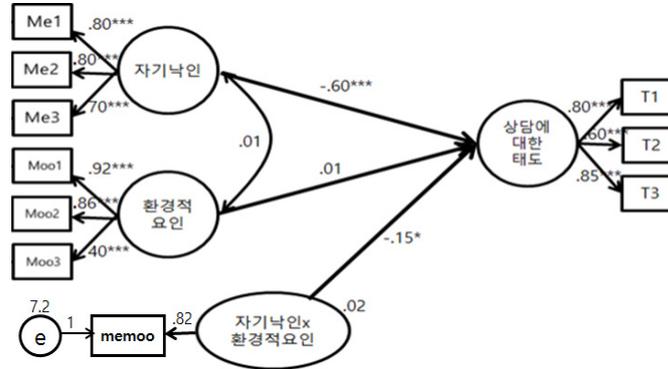


그림 5. 조절모형 2의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주. $N=257$. * $p < .05$. *** $p < .001$.

자기 낙인과 상담 친화적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 변인의 단일지표(memoo) 외 측정지표의 오차항은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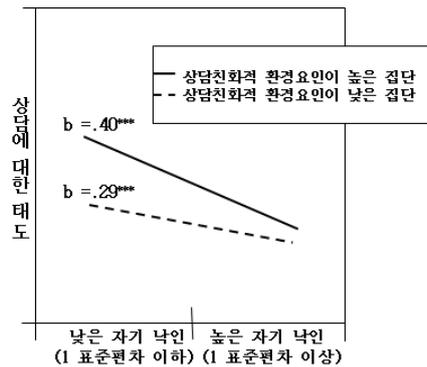


그림 6. 상담 친화적 환경에 따른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도의 관계

주. $N=257$. *** $p < .001$.

과 상담 태도 간 기울기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b = -.40$, $p < .001$), 상담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덜한 집단에서는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 간 기울기가 보다 완만하게 감소하였다($b = -.29$, $p < .001$). 즉, 자기 낙인을 적게 경험하는 중년 남성들은 상담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지각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상담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반면, 자기 낙인을 많이 경험하는 중년

남성들은 상담 친화적 환경의 조성 여부가 상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변인을 비롯한 모든 변인들이 포함된 조절된 매개모형(그림 7 참조)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224,$

N=257)=507.345, $p<.001$; CFI=.91; TLI=.90; RMSEA=.07(90% CI=.067-.087). 중년의 위기감과 환경 요인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하였다. 우선, 성역할 갈등이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를 통해 상담 의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또한 중년의 위기감이 포함된 상호작용 변인은 자기 낙인을 매개로 상담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상담 의도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낙인 수준이 높고, 그것이 부정적인 상담 태도 및 의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매개효과), 중년의 위기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이러한 매개효과가 크게 관찰된다는(조절효과)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담 친화적 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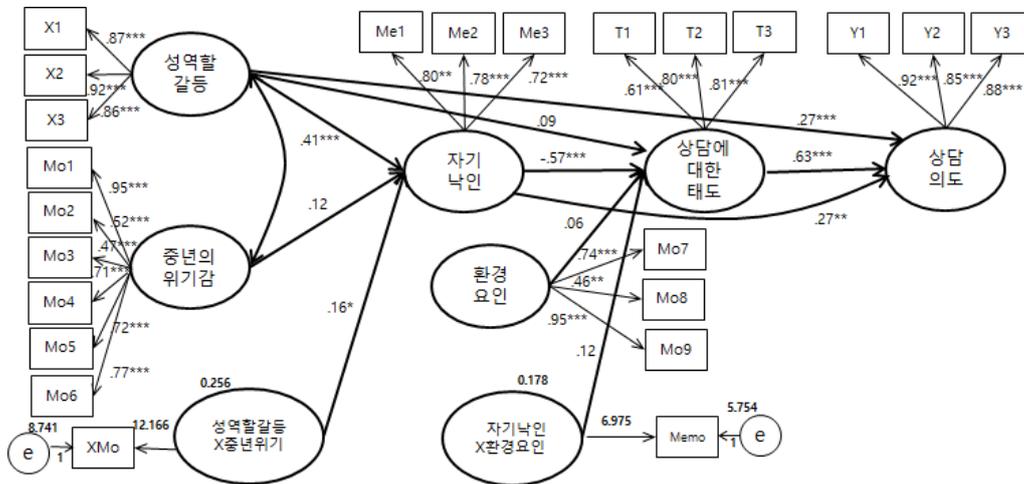


그림 7.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결과

주. N=257. * $p<.05$. ** $p<.01$. *** $p<.001$. 성역할 갈등과 중년의 위기감의 상호 작용 변인의 단일지표(XMo), 자기 낙인과 상담 친화적 환경요인의 상호작용 변인의 단일지표(Memo) 외 측정지표의 오차항은 생략함.

표 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인	→ 매개변인	→ 종속변인	표준화계수	95% 신뢰구간 (최고치와 최저치)	
성역할갈등	→ 자기낙인	→ 상담에 대한 태도	-0.11**	-0.06	-0.18
성역할갈등 x 중년위기감	→ 자기낙인	→ 상담 태도	-0.09*	-0.02	-0.17
성역할갈등 x 중년위기감	→ 자기낙인	→ 상담 태도	-0.04*	-0.01	-0.08
성역할갈등 x 환경요인	→ 자기낙인	→ 상담 태도	0.05	0.04	-0.12

주. N=257. * $p<.05$. ** $p<.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 모델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중년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자기 낙인을 통해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친화적 환경 요인이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연구 결과를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와 비교하고,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실제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우선, 성역할 갈등은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상담 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자기 낙인과 상담 의도의 관계에서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이민지와 손은정(2007), 성역할 갈등과 상담 태도의 관계에서 자기 낙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Pederson과 Vogel(2007)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태도와 의도 변인을 동시에 모형에 포함시켜 자기 낙인 및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즉, 중년 남성이 성역할 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는 것을 ‘문제가 있는’, ‘부족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이는 결국 중년 남성으로 하여금 전문 기관을 찾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상담 태도에 대한 성역할 갈등의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대신 자기 낙인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박준호와 서영석(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중년 남성의 경우에도 성역할 갈등이 심할 때 상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이유는 결국 상담에 대한 자기 낙인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성역할 갈등과 상담 의도, 자기 낙인과 상담 의도 간 직접 경로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 경로가 정적 또는 부적 관계로 존재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 결과는 Pederson과 Vogel(2007), 박준호와 서영석(2009), 진경미와 권경인(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상담 의도에 대한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의 직접효과는 정적인 데 반해, 상담 태도를 통한 간접효과는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 상담 의도의 관계에서 상담 태도의 억제 효과를 추론케 한다. 즉, 상담에 대한 태도를 통계적으로 통제했을 때에는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이 상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러한 통제를 가하지 않은 일상 장면에서는 상담에 대한 태도가 이들의 영향을 억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상담 태도의 억제 효과를 시사한 경우가 있다. 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진경미와 권경인(2015)의 연구에서도 많은 응답자가 상담에 대한 의도가 비교적 높으면서도 갈등수준이 높고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높은 양가적 집단(이미경, 이상민, 2013)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즉, 성역할 갈등이나 자기 낙인 수준이 높으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종사자들이 상담을 추구하려는 의도는 높을 수 있지만, 상담에서의 비밀 보장이나 상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실제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중년의 위기감은 성역할 갈등과 상호작용해서 자기 낙인 수준을 상승시키는 조절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의 위

기감이 낮은 남성의 경우 성역할 갈등 수준과 상관없이 자기 낙인이 낮은 반면, 중년의 위기감이 높은 남성의 경우에는 성역할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낙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vant 등(2013), Yen 등(2005)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규범과 자기 낙인의 관계에서 우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것처럼, 연령 특수적이면서도 심리적 디스트레스(우울, 불안)의 선행요인으로 가정되는 중년의 위기감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한 본 연구모형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즉,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도움 추구 모델에서 중년의 위기감을 중요하게 다뤄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상담 친화적 환경 또한 자기 낙인과 상담 태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 요인이 자기 낙인과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조절하는 정연정(20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기 낙인 수준이 낮은 중년 남성들이 상담 친화적 환경에 노출될 경우 상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자기 낙인 수준이 높은 중년 남성의 경우, 즉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신을 ‘약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중년 남성일수록 상담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상관없이 상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상담에 대한 중년 남성의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담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상담 이용과 관련된 중년 남성들의 자기 낙인을 줄이기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성역할 갈등이 자기 낙인을 통해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 의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중년의 위기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의 위기감에 따라 성역할 갈등과 자기 낙인의 관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성역할 갈등이 자기 낙인을 통해 상담에 대한 태도와 상담 의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또한 중년의 위기감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은 상담 의도를 높여주는 접근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중년의 위기감은 자기 낙인을 상승시키고 결국 상담에 대한 태도 및 의도를 약화시키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된 행동에 있어서 중년 남성들이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과 실존적 불안,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심리적 분투가 대학생 집단이 경험하는 우울과는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오랜 기간 사회규범과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해온 중년 남성들이 발달상의 위기를 경험할 때 약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상담서비스를 구하려는 의도 또한 저하될 수 있다. 한편, 상담 친화적 환경 요인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 요인에 따라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도의 관계는 달라지지만, 자기 낙인이 상담에 대한 태도를 통해 상담 의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중년 남성들의 상담서비스 접근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 낙인과 중년의 위기감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선, 중년 남성들의 상담 및 심리치료와 관련된 자기 낙인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내담자들의 낙인 수준을 줄이기 위해

좁은 대기실과 긴 대기시간, 통행로 근처의 상담실 등을 피하고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언하였다(정연정, 2010; Kushner & Sher, 1991).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자기 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상담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상담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최근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최성인, 김창대, 2010). 즉,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신을 무능력하게 바라보는 열등감의 꼬리표를 숨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도록 중년 남성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Vogel 등(2010)은 상담 받는 것 자체를 긍정적인 단어와 결합시켜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이 자기 낙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언하였다. 가령,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비교적 적고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멘토링이나 컨설팅, 자문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혜롭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위기관리에 ‘성공’하거나 문제를 ‘개선’하고 우울감을 ‘격파’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면, 도움추구와 관련된 중년 남성들의 자기 낙인 수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이 겪는 증상이나 문제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할 때 중년 남성은 보다 수월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다(Addis & Mahalik, 2003). 또한 중년 남성이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 기관을 이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반면, 자녀의 문제 행동과 심리적 어려움(최난경, 정문자, 2013), 직무 능력 향상(진경미, 권경인, 2015)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자녀 관계, 자녀 문제 개선, 직무 만족 및 직무 능력 향상과 같은 내용으로 상담서비스를 홍보한다면 도움추구와 관련된 자기 낙인을 우회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서비스 추구하고 관련된 낙인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중년 남성의 위기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유소년기와 노년기에는 가정, 사회,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지만, 정작 그들을 돌봐야 하는 중년기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년의 위기감의 의미와 역할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기반을 확립한 사람 역시 발달상의 심리정서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 항목에 위기감을 측정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년 남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위기감을 정상화(normalizing) 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중년 남성은 그 시기의 어려움과 위기감을 혼자 감당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직장에 상담사가 상주하거나 파견되어 스트레스 관리, 감정 표현 및 대인기술, 갈등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상담함으로써 중년 남성들이 당면하는 위기감을 정당화하고 이를 관리하고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담 실제 뿐 아니라 관련 연구 및 이론에 몇 가지 의의를 지닌다. 우선, 중년 남성들이 왜 상담을 받지 않으려 하는지 그 심리 내적 갈등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동안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 갭 현상을 경험적

으로 연구한 논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른 세대, 다른 성별에 못지않게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적게 이용해왔던 중년 남성들은 마치 외딴 섬처럼 존재하여, 그 섬에 들어가 보려던 사람도 그 섬을 나오려던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 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중년 남성의 전문적 도움 추구하고 관련된 잠재적 장애물과 그것을 조절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시도한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나 관련 이론 정립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 내적 변인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했는데, 접근요인 또는 회피요인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전문적 도움추구를 설명하거나,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을 모두 예측 변인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일차원적인 인과적 구조모형을 가정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삶의 원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통합적 연구 모형은 잠재적인 내담자를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전문적 도움 추구 모델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중년의 위기감과 상담 친화적 환경 요인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은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불안과 스트레스, 관계에서의 외로움과 불안 등으로 중년의 위기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그런 중년의 위기감이 자기

낙인을 더욱 상승시켜 도움추구에 대한 벽을 보다 단단하게 만든다는 본 연구 결과는, 중년 남성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받는 것에 소극적인 이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담 의도 척도는 각각 17가지 문제 유형을 실제 경험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평정한다. 이 경우 특정 문제에 대한 상담 의도만 높은 사람과 전반적인 상담 의도가 보통 수준이거나 낮은 사람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특정 영역을 가정한 의도보다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반적인 상담 의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주요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상담 친화적 환경 요인을 평정함에 있어서 내용타당도나 구인타당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척도를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접근성 이론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환경 요인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환경에 대한 질문은 복잡한 심리 내적인 요소와 달리 단순하고 직접적이라 판단하여 각각의 요인을 한 문항씩으로 평정했는데, 단일 문항으로 해당 요인을 측정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상담 친화적 환경 요인을 보다 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가 횡단 자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변인 간 관계가 반드시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일방향의 인과 관계가 아닐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 구축을 통해 발달적 특징을 고려한 변인 간 관

계를 탐색하거나,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가정된 일방향의 인과적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257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석된 자료의 91%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는데,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표본 오류 통제 등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중년 남성들이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역할 갈등 및 상담 친화적 환경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예, 학력, 직업,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본 연구 참여자들과는 다른 배경을 지닌 중년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문적 도움 추구에 소극적인 중년 남성의 심리내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후속 연구들을 통해 다른 위험 요인 뿐 아니라 중년 남성들의 도움 추구를 촉진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환경적 보호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미옥, 김경숙 (2016). 부부친밀감, 자기효능감, 심리적 위기감이 중년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1(1), 165-174. <http://dx.doi.org/10.21097/ksw.2016.02.11.1.165>
- 김민정, 현명호 (2010).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남성 화병 증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9-33.
- 김선경, 전재영 (2012). 기업상담소 방문 결정 이유에 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465-483.
- 김애순, 윤진 (1991). 중년기 위기감 척도 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73-87.
- 김지현, 최희철 (2007). 남성 성역할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 존중감의 매개효과: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45-160.
- 김지현, 황매향, 유정이 (2003).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4(3), 25-41.
- 박수애, 조은경 (2002). 남성 성역할이 우리나라 남성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2), 77-103.
- 박준호, 서영석 (2009).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 갈등과 상담 의도와 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5-48.
- 송호근 (2013).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서울: 이와우.
-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 유성경 (2005). 한국 대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17-632.
- 이근평 (2015. 3. 26). 40대 퇴직자 9급 열풍. *문화일보*, p. A2. Retrieved fr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32601070221159001>
- 이미경, 이상민 (2013). 상담에 대한 양가태도

- 집단의 특성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1(1), 189-210.
- 이민지, 손은정 (2007).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49-966.
- 이서영 (2014). 중년기 기혼여성의 노후준비와 위기감이 결혼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29-46.
- 이주희, 이선화 (2015). 중년기 기혼 남녀의 의사소통유형과 부부친밀감의 관계에서 자기성찰의 조절효과-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41-657.
- 정성호 (2006). *중년의 사회학*. 서울: 살림 출판사.
- 정연정 (2010).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 사업의 서비스 이용 결정 요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진철, 양난미 (2010).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31-652.
- 진경미, 권경인 (2015). 기업체 종사자의 전문적 상담 추구 의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09-128.
- 최난경, 정문자 (2013). 정서, 행동 문제가 있는 초등학생 어머니의 아동상담 추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6(2), 125-151.
- 최성인, 김창대 (2010).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한국판(K-BEACS)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1(1), 169-195.
- 최승미, 김지연 (2016). 중년기 기혼 남녀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웰빙과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4), 683-702.
- 최태산, 박혜경 (2011). 중년 남성이 지각한 자기 의식과 성역할 스트레스가 중년의 위기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3), 931-944.
- 최희철 (2010). 계획적 행동 이론을 적용한 상담 추구 의도 예측 모형.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효열 (2014). 성인남성의 불안장애척과 도움추구 행동과의 관계: 정서명료성의 조절효과.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국가통계포털 (2014). *근로환경만족도 조사*.
-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 *전반적 생활스트레스 조사*.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정송 (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차. *인간발달연구*, 21(4), 1-24. <http://dx.doi.org/10.15284/kjhd.2014.21.4.1>
- 황연미 (2009).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과 전문적 도움 추구와의 관계에서 자기낙인과 자기공개 기대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ddis, M. E., & Mahalik, J. R. (2003). Men, masculinity, and the contexts of help seeking. *American Psychologist*, 58(1), 5-14. <http://dx.doi.org/10.1037/0003-066X.58.1.5>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http://dx.doi.org/10.1016/0749-5978\(91\)90020-T](http://dx.doi.org/10.1016/0749-5978(91)90020-T)

- Ajzen, I., & Fishbein, M. (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5), 888-918. <http://dx.doi.org/10.1037/0033-2909.84.5.888>
- Ajzen, I., Timko, C., & White, J. B. (1982). Self-monitoring and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3), 426-435. <http://dx.doi.org/10.1037/0022-3514.42.3.426>
- Anderson, R. M. (1995).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1), 1-10.
- Boydell, K. M., Pong, R., Volpe, T., Tilleczeck K., Wilson, E., & Lemieux, S. (2006). Family perspectives on pathway to mental health care for children and youth in rural communities. *The Journal of Rural Health*, 22(2), 182-188. <http://dx.doi.org/10.1111/j.1748-0361.2006.00029.x>
- Cash, T. F., Begley, P. J., McCrown, D. A., & Weise, B. C. (1975). When counselors are heard but not seen: Initial impa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4), 273-279. <http://dx.doi.org/10.1177/00110007600600102>
- Cauce, A. M., Domenech-Rodríguez, M., Paradise, M., Cochran, B. N., Shea, J. M., Srebnik, D., & Baydar, N. (2002). Cultural and contextual influences in mental health help seeking: A focus on ethnic minority you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44-55. <http://dx.doi.org/10.1037/0022-006X.70.1.44>
- Cepeda-Benito, A., & Short, P. (1998). Self-concealment, avoidance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58-64.
- Corrigan, P. W.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7), 614-625. <http://dx.doi.org/10.1037/0003-066X.59.7.614>
- Corrigan, P. W., Watson, A. C., & Barr, L. (2006). The self-stigma of mental illness: Implications fo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8), 875-884. <http://dx.doi.org/10.1521/jscp.2006.25.8.875>
- Finch, F. F., West, S. G., & MacKinnon, D. P. (1997). Effects of sample size and nonnormality on the estimation of mediated effects in latent variable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4(2), 87-107. <http://dx.doi.org/10.1080/10705519709540063>
- Fischer, E. H., & Farina, A. (1995).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 shortened form and considerations for research.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4), 368-373.
- Fischer, E. H., & Turner, J. I.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1), 79-90. <http://dx.doi.org/10.1037/h0029636>
- Fisher, R. A. (1925). Theory of statistical estimation. In *Mathematical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 22(5), 700-725.
- Good, G. E., & Wood, P. K. (1995). Male gender role conflict, depression, and help seeking: Do

- college men face double jeopard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1), 70-7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http://dx.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Jang, Y., Chiriboga, D. A., & Okazaki, S. (2009). Attitudes toward mental health services: Age-group differences in Korean American adults. *Aging and Mental Health*, 13(1), 127-134. <http://dx.doi.org/10.1080/13607860802591070>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New York: Pantheon.
- Kazdin, A. E., Holland, L., Crowley, M., & Breton, S. (1997). Barriers to treatment participation scale: Evaluation and validation in the context of child outpatient trea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8), 1051-1062. <http://dx.doi.org/10.1111/j.1469-7610.1997.tb01621.x>
- Kendra, M. S., Mohr, J. J., & Pollard, J. W. (2014). The stigma of having psychological problems: Relations with engagement, working alliance, and depression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51(4), 563-573. <http://dx.doi.org/10.1037/a0036586>
- Kenny, D. A., Kashy, D. A., & Bolger, N. (1998). Data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233-26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enny, D. A., & McCoach, D. B. (2003). Effect of the number of variables on measures of 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0(3), 333-351.
- Kushner, M. G., & Sher, K. J. (1991). The relation of treatment fearful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3), 196-203. <http://dx.doi.org/10.1037/0735-7028.22.3.196>
- Lachman, M. E. (2004). Development in mid-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305-331. <http://dx.doi.org/10.1146/annurev.psych.55.090902.141521>
- Levant, R. F., Stefanov, D. G., Rankin, T. J., Halter, M. J., Mellinger, C., & Williams, C. M. (2013). Moderated pa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masculinity and men'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3), 392-406. <http://dx.doi.org/10.1037/a0033014>
- Levinson, D. J. (1996).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원전은 1978년에 출판)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S.,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http://dx.doi.org/10.1207/S15328007SEM0902_1
- Mackenzie, C. S., Gekoski, W. L., & Knox, V. J. (2006). Age, gender, and the underutilizat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The influence of help-seeking attitudes. *Aging & Mental Health*, 10(6), 574-582. <http://dx.doi.org/10.1080/13607860600641200>

- Magovcevic, M., & Addis, M. E. (2005). Linking gender role conflict to nonnormative and self-stigmatizing perceptions of alcohol abuse and depression.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6(2), 127-136. <http://dx.doi.org/10.1037/1524-9220.6.2.127>
- Möller-Leimkühler, A. M. (2002). Barriers to help-seeking by men: A review of sociocultural and clinical literatur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1(1), 1-9. [http://dx.doi.org/10.1016/S0165-0327\(01\)00379-2](http://dx.doi.org/10.1016/S0165-0327(01)00379-2)
- Nam, S. K., Choi, S. I., & Lee, S. M. (2015). Effects of stigma-reducing conditions on intention to seek psychological help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with anxious-ambivalent attachment. *Psychological Services*, 12(2), 167-176. <http://dx.doi.org/10.1037/a0038713>
- O'Neil, J. M. (1981). Male sex role conflict, sexism, and masculinity: Psychological implications for men, women, and the counseling psychologis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9(2), 61-80.
- O'Neil, J. M., Helms, B. J., Gable, R. K., David, L., & Wrightsman, L. S.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5), 335-350.
- Pederson, E. L., & Vogel, D. L. (2007).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esting a mediation model on college-age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73-384. <http://dx.doi.org/10.1037/0022-0167.54.4.373>
- Penchansky, R., & Thomas, J. W. (1981). The concept of access: Definition and relationship to consumer satisfaction. *Medical Care*, 19(2), 127-140.
- Ping, R. A. (1996). Latent variable interaction and quadratic effect estimation: A two-step technique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9(1), 166-175. <http://dx.doi.org/10.1037/0033-2909.119.1.166>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http://dx.doi.org/10.1080/00273170701341316>
- Rickwood, D. J., & Braithwaite, V. A. (1994). Social-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help-seeking for emotional problems. *Social Science & Medicine*, 39(4), 563-572. [https://doi.org/10.1016/0277-9536\(94\)90099-X](https://doi.org/10.1016/0277-9536(94)90099-X)
- Rickwood, D., Deane, F. P., Wilson, C. J., & Ciarrochi, J. (2005). Young people's help-seeking for mental health problems. *Australian e-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Mental Health*, 4(3), 218-251. <http://dx.doi.org/10.5172/jamh.4.3.218>
- Robertson, J. M., & Fitzgerald, L. F. (1992). Overcoming the masculine mystique: Preferences for alternative forms of assistance among men who avoid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2), 240-246. <http://dx.doi.org/10.1037/0022-0167.39.2.240>
- Russell, D. W., Kha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8. <http://>

- dx.doi.org/10.1037/0022-0167.45.1.18
- Sawyer, M. G., Borojevic, N., Spence, S. H., Sheffield, J., & Lynch, J. (2012). Do help-seeking inten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vary for adolescents experiencing different levels of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0*(3), 236-242. <http://dx.doi.org/10.1016/j.jadohealth.2011.06.009>
- Shrout, P. E., & Bogl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http://dx.doi.org/10.1037/1082-989X.7.4.422>
- Vogel, D. L., Heimerdinger-Edwards, S. R., Hammer, J. H., & Hubbard, A. (2011). "Boys don't cry": Examination of the links between endorsement of masculine norms, self-stigma, and help-seeking attitudes for men from diverse background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3), 368-382. <http://dx.doi.org/10.1037/a0023688>
- Pederson, E. L., & Vogel, D. L. (2007). Male gender role conflict and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esting a mediation model on college-age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73-384. <http://dx.doi.org/10.1037/0022-0167.54.4.373>
- Vogel, D. L., Wade, N. G., & Haake, S. (2006). Measuring the self-stigma associated with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25-337. <http://dx.doi.org/10.1037/0022-0167.53.3.325>
- Vogel, D. L., Wester, S. R., Wei, M., & Boysen, G. A. (2005). The role of outcome expectations and attitudes on decisions to seek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459-470. <http://dx.doi.org/10.1037/0022-0167.52.4.459>
- Vogel, D. L., & Wester, S. 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51-361. <http://dx.doi.org/10.1037/0022-0167.50.3.351>
- West, S. G., Aiken, L. S., & Krull, J. L. (1996). Experimental personality designs: Analyzing categorical by continuous variable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4*(1), 1-48. <http://dx.doi.org/10.1111/j.1467-6494.1996.tb00813.x>
- Wilson, C. J., & Deane, F. P. (2010). Help-negation and suicidal ideation: The role of depression, anxiety and hopelessnes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3), 291-305. <http://dx.doi.org/10.1007/s10964-009-9487-8>
- Wu, A. D., & Zumbo, B. D. (2008). Understanding and using mediators and moder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7*(3), 367-392. <http://dx.doi.org/10.1007/s11205-007-9143-1>
- Yen, C. F., Chen, C. C., Lee, Y., Tang, T. C., Yen, J. Y., & Ko, C. H. (2005). Self-stigma and its correlates among out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s. *Psychiatric Services, 56*(5), 599-601. <http://dx.doi.org/10.1176/appi.ps.56.5.599>
- 원 고 접 수 일 : 2016. 12. 19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3. 26
게재결정일 : 2017. 05. 11

**Professional Help Seeking in Middle-Aged Me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id-Life Crisis and Counseling Environment on the Links
between Self-Stigma, Gender Role Conflict, Attitudes toward Counseling,
and 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Soo Jung An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Based on the help-seeking model (Vogel & Wester, 2003) and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id-life crisis and counseling environment,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stigma on the links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professional help seeking variables. Data from a sample of 257 men between the ages of 40 to 59 were analyzed using the moderated mediation model by Preacher, Rucker, and Hayes (2007). First, gender role conflict negatively impacted help seeking variables via self-stigma. Second, mid-life crisis moderated the link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self-stigma, and the environment variabl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stigma and counseling attitudes. Third, mid-life crisis moderated the indirect effect of gender role conflict; the bigger the crisis, the greater the indirect effect of gender role conflict on the help-seeking variable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the environment variable was not significant.

Key words : male gender role conflict, self-stigma, attitudes toward counseling, intentions to seek counseling, mid-life crisis, counseling-friendly environment